



법무부

보 도 자 료

국민이 공감하는 **공존의 정의**
민생에 힘이 되는 **법무행정**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총 3쪽	
배포일시	2021. 12. 7.(화)	담당부서	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
담당과장	김연정 02)2110-3647	담당자	검찰주사보 엄재성 02)2110-3783

법무부,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4건의 시정명령

- ☐ 법무부(장관 박범계)는 '21. 12. 7.(화) '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*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,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

*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,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장관께 권고하는 기관임
- 위원장은 법무부차관, 내부위원 2인(법무실장, 인권국장),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임기는 2년임
- 현재 외부위원 5인 중 장애당사자가 4명이며, 여성이 3명임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)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,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, 법무부는 권고 이행

상황을 점검하여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*만이 내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.

* '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직권면직 당한 뇌병변장애인 팀장 복직명령 사건', '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명령 사건' 2건에 불과함

－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(피해의 심각성 및 공익의 중대성 삭제)하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*을 2021. 6. 30.부터 시행하였고,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되었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하였습니다.

* 시정명령의 요건 중 '침해의 심각성'과 '공익의 중대성'을 삭제하여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, 시정명령에 따른 진정한, 피진정한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보장하도록 함

□ 법무부가 2021. 12. 7.(화) 결정한 4건의 시정명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 iMBC, SBS 콘텐츠허브, 부산MBC, KNN이 운영·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의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iMBC, SBS 콘텐츠허브, 부산MBC, KNN 사장들에 대하여 「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」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」을 명령하였습니다.

* 진정한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-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으로,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'라이브톡 프로그램'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'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」을 명령하였습니다.

*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여의도 콤포트관을 방문하였으나 콤포트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‘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콤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’을 명령하였습니다.

*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으로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하여 놀이기구 ‘타가다디스코’를 탑승하려 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‘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,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’을 명령하였습니다.

－ 특히 MBC,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“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”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하여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

－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,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하여, 향후 문화·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－ 월미테마파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,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.

□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☑